
그래도 윤어게인과 극우와 구태입니다.

희생번트 시도가 있다고 해서 팀윤석열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는 수많은 윤어게인과 극우와 구태들은 김문수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전히 한 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중국 공산당 간첩들이 침투.... 하이브리드전의 핵심에 부정 선거가 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광화문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외쳐 오신 애국시민들께 감사”

며칠 전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된 최 모씨와 함 모씨가 극우집회와 극우언론 등에서 한 말들입니다. 부정선거와 중공 간첩을 믿는,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극우의 입들이 공식적인 김 후보의 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청년대변인이라는 정 모 씨는 탄핵 직후 “윤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젊은이들이 제2의 건국전쟁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윤어게인 행진에 적극 나선 인물입니다. 윤석열과 계속 함께하겠다는 그 망상에 공식 밥상을 차려준 셈입니다.

상임고문단은 그야말로 기가 찹니다. 일부 고문들의 유죄경력만 나열해도 뇌물수수, 전당대회 금품살포, 캐디 성추행, 비례대표 공천대가 금품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끝이 없습니다.

이런 인물들과 함께 하려는 나라가 과연 새로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부정부당 구태의연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캠프로 제기되는 문제만 봐도, 국민의힘 캠프 관계자들이 자유통일당 측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연루 의혹 세력과 태극기 부대 세력이 캠프 내에서 싸우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도 나옵니다.

양두구육입니다. 젊은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그 이면의 추악함은 2022년 윤석열 캠프와 다르지 않습니다. 겉도 속도 윤석열을 닮은 김문수 캠프는 탈당쇼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2025년 5월 17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 · 박관천